

EU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 포커스 : EU, '27년 배터리 '디지털 여권' 의무화 앞두고 세부 정보 기준 공개
- 단신
 - [순환경제] EU, 재활용·2차 원료 시장 활성화 위한 폐기물 'Green List' 확대 추진
 - [탈탄소]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내 제조해운 분야 일부 규정 개정 의견 수렴 진행
 - [자동차] 고유가 지속과 저가 전기차 모델 출시 확대로 유럽 전기차 판매 증가
 - [경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유럽 성장 모델 전환 및 자본시장 통합 강조
- 무역관 행사 안내 * EU 소비자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규정 웨비나(9.15, 16:00~17:35(KST))



주요 경제통상 일정

일정	내용
8.31(월)~9.1(화)	EU 국방장관 비공식 회의 개최
9.1(화)~9.2(수)	EU 외무장관 비공식 회의 개최
9.9(수)	공공조달법, 유럽혁신법 발표
9.14(월)~17(목)	유럽의회 본회의 개최
9.16(수)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2026) 발표

EU, '27년 배터리 '디지털 여권' 의무화 앞두고 세부 정보 기준 공개

- ◎ EU 집행위원회는 '27.2월 배터리 여권 의무화를 앞두고, 71개 데이터 항목과 EV·LMT·산업용 배터리별 기재 요건을 구체화
- ◎ 배터리 유형별 의무·조건부·미기재 항목이 다르며, 탄소발자국·공급망 실사·재생 원료 등 일부 정보는 후속 법령에 따라 순차 적용
- ◎ 기업은 제품별 필요 데이터를 사전 점검하고, 후속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필요

□ 개요

- EU 집행위원회, EU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개(8.21)
 - * 동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향후 데이터 항목별 정의나 측정단위 및 보고형식 등에 대한 세부 설명이 추가될 수 있음
- 동 가이드라인은 「EU 배터리 규정」상 배터리 여권에 포함되는 데이터 항목을 정리한 안내 문서로, EV(전기차)·LMT(경량운송수단)·2kWh 초과 산업용 배터리별 기재 요건을 제시
- '27.2월 배터리 여권 의무화에 앞서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사전에 식별하고, 내부 프로세스·데이터 시스템·보고 관행을 조기에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
- 이번 가이드라인은 배터리 여권에 포함되는 정보를 71개 세부 항목으로 정리하고, 배터리 유형별 기재 요건을 구체화
 - 특히 배터리 유형별 차등 적용과 '27.2월 시점 미기재 항목 등을 명확히 해 실무 이행을 지원

<EU 배터리 여권 관련 주요 규정·제도>

-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 EU 2024/1781) EU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의 내구성·수리가능성·자원효율성·재활용성 등 지속가능성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규정으로, 디지털제품여권(DPP)의 공통적인 법적·기술적 체계를 마련
 - EU 디지털제품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제품의 구성·성능·지속가능성·수리·재활용 등의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배터리는 EU 최초로 DPP가 의무 적용되는 제품군
 - DPP 고유 식별정보 등을 등록·관리하는 EU DPP 레지스트리(DPP Registry)는 '26.7.20 운영 개시
 - EU 배터리 규정(EUBR, EU 2023/1542): 배터리의 설계·생산·사용·폐기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안전성·성능·지속가능성·회수 재활용 요건을 규정한 법령으로, 특정 배터리에 대한 배터리 여권 의무도 포함
 - 배터리 여권은 EV·LMT·2kWh 초과 산업용 배터리에 적용되며, 여권 생성·관리 의무는 완성 배터리를 EU 시장에 출시하는 경제 운영자에게 귀속
 - 배터리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 여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관련 의무는 '27.2.18부터 적용
- * 참고 : EU 집행위원회 디지털제품여권 공식 홈페이지([링크](#))

□ 주요 내용

- **【데이터 항목】** 배터리 여권에 포함되는 정보를 총 71개 데이터 항목(data points)으로 구분
 - **(주요 정보)*** 제품 식별을 위한 기본정보, 성능·내구성 정보,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수리·재사용·재활용 지원정보 및 사용 과정의 상태·성능정보 등이 포함
 - * 상기 정보 유형은 가독성을 위해 주요 데이터 항목을 성격별로 재구성한 것으로, 가이드라인상의 공식 분류가 아님. 세부 71개 데이터 항목은 가이드라인 원문 참조([링크](#))
 - **(항목구조)** 각 데이터 항목은 ① 데이터 번호, ② 항목명, ③ 배터리 규정상 법적 근거, ④~⑥ EV·LMT·산업용 배터리별 적용 여부로 구성
 - **(적용구분)** 배터리 유형별 기재 요건을 ❶의무 기재(Mandatory), ❷선택 기재(Optional), ❸조건부(If Applicable), ❹미기재·미표시*로 구분
 - * 미기재·미표시는 기존 항목과 중복되거나, 해당 배터리 유형에 적용되지 않거나, '27.2월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는 경우
- **【유형별 차등】** 동일 데이터 항목도 EV·LMT·산업용 배터리에 따라 적용 수준 상이
 - **(건전성 정보)*** 인증 에너지 상태(SOCE, State of Certified Energy)는 전기차 배터리에만 의무이며, 잔여용량·잔여출력·자가방전을 등은 LMT에 의무, 산업용에는 조건부 적용
 - * 건전성(SOH, State of Health) 정보: 배터리의 노화 정도와 잔존 성능을 나타내는 정보
 - **(성능·수명 정보)** 용량 소진 임계값은 전기차 배터리에만 의무이며, 예상수명(사이클)·왕복에너지 효율·수명시험 관련 C-rate* 등은 산업용 배터리의 경우 해당 지표가 적용되는 제품에 한해 기재
 - * 배터리의 정격용량을 기준으로 충·방전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
- **【미기재 항목】** 일부 데이터는 후속 법령 적용·기존 항목과의 중복 등의 사유로 '27.2월에는 기재 대상에서 제외
 - 탄소발자국 선언 및 라벨은 관련 이행법에서 형식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공급망 실사 정보는 '27.8월부터, 코발트·리튬·니켈·납 재생원료 함량은 제8조 및 관련 위임법에 따라 향후 적용돼 '27.2월에는 미기재
 - 데이터 항목 44번 사용지침 정보는 관련 EU 옴니버스(Omnibus) 법안* 채택 전까지 적용이 보류되며, 소재조성(16번)과 정격용량(25번)은 기존 항목과 중복돼 별도 기재하지 않음
 - * EU의 규제 간소화를 위한 입법 패키지

□ 시사점 및 전망

- 배터리 유형별로 요구되는 데이터가 구체화됨에 따라, 기업은 제품 특성에 맞는 데이터 관리·보고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필요
- EV·LMT·산업용 배터리마다 적용 항목이 상이한 만큼, 제품별로 필요 정보와 추가 확보가 필요한 데이터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
- 특히 배터리 여권 생성·관리 책임이 완성 배터리를 EU 시장에 출시하는 경제 운영자에게 있는 만큼, 공급망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과 협력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

- '27.2월 배터리 여권 의무화 이후에도 일부 데이터 항목의 기재 요건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후속 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탄소발자국·공급망 실사·재생원료 함량 등 일부 데이터는 '27.2월 이후 관련 이행·위임법 등에 따라 적용시기와 기재방식이 순차적으로 구체화될 예정
- 향후 데이터 항목별 정의·측정단위·보고형식 등에 대한 세부 설명도 추가될 수 있어, 제도 변화에 맞춰 기존 시스템을 유연하게 보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

• 자료 : EU 집행위원회(8.21)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심은정(inji.sim@kotra.or.kr)



□ [순환경제] EU, 재활용·2차 원료 시장 활성화 위한 폐기물 'Green List' 확대 추진

- 8.18일, EU 집행위원회는 폐기물 운송 규정(WSR)상 'Green List'의 ① 적용 대상 폐기물 확대, ② 폐유리 분류 기준을 구체화한 2개의 위임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8.18~9.15) 진행

<폐기물 운송 규정(Waste Shipment Regulation, EU 2024/1157)>

- EU 역내·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관리 요건을 규정한 법으로 '24.5월 발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非)유해 폐기물을 Green List로 분류해, 역내 재활용 목적 운송 시 당국의 사전 통보·동의 대신 간소화된 절차 적용
- 이번 마련된 위임법 초안은 EU 역외 수출이 아닌 EU 회원국 간 폐기물 운송을 대상으로 함

- ① (적용 대상 확대) △건설·철거 시 발생하는 알루미늄 및 철강 폐기물, △폐차 회수 금속, △폐가전·폐차·폐풍력터빈 회수 영구자석, △일부 전기·전자폐기물(WEEE)*, △폐매트리스, △섬유 강화 폴리머 복합재 등

* WEEE 지침(2012/19/EU)에 따른 처리 과정을 거친 비(非)유해 제품 및 관련 폐기물

- ② (분류 기준 구체화) 기존 Green List에 포함된 폐유리에 대해 타 폐기물 혼입 허용 한도를 중량 기준 10%로 설정*, 회원국별 상이한 분류 기준을 통일

* 기준 초과 시, 혼합 폐기물로 분류되어 Green List 적용 배제

- 동 조치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역내 이동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해, EU의 2차 원료 단일시장 구축을 지원하려는 취지*

* 역내 재활용 원료 활용을 확대해 원자재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순환경제 정책의 일환

- EU 집행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26.4분기까지 최종안을 채택할 예정

• 자료 : EU 집행위원회(8.18)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doyeonkim@kotra.or.kr)

□ [탈탄소]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내 제조·해운 분야 일부 규정 개정 의견 수렴 진행

- EU 집행위원회, ETS 개정 관련 산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공개 의견 수렴 절차 개시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U-ETS, Emissions Trading System)>

- (개요)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U-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에너지 집약 산업 등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상한선을 정하고, 오염자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로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5년 대비 62%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
- (ETS1) '05년부터 화석 연료 발전, 석유 정제, 철강, 금속, 시멘트, 석회, 유리, 도자기, 펄프, 종이, 화학, 항공, 해운 등의 산업에 우선 도입하여 무상 배출권 할당량을 단계적으로 감축 중으로 '26년부터 시행된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와 연계하여 역내 산업에 대한 무상 할당량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할 예정
- (ETS2) '28년부터 건물 난방 연료 및 도로 운송 연료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100% 유상할당(경매) 방식으로 진행되는 별도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예정

- 집행위원회는 '26.7.17일 발표한 EU ETS 개정안 중 제조업 분야의 무상 할당 벤치마크 조정과 해운 분야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단일화 등 산업계의 기술적 피드백이 중요한 규정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 중(8.20~10.19)
- 이번 의견 수렴은 역내·외 구분 없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은 10.19일까지 개정 조항에 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개진할 수 있음
- 열·연료 기반 대체 벤치마크의 '26~'30년 무상 할당 조정
 - '26.6월 발표된 '26~'30년 ETS 무상 할당 벤치마크 적용 시 탈탄소 전환이 어려운 분야의 탄소 누출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산업계 우려를 수용하여, 열·연료 대체 벤치마크(Fallback benchmarks) 적용 분야에 '26~'30년 8천만 톤*의 무상 할당 추가 제안
 - * EU ETS는 총 배출권의 43%는 무상 할당, 57%는 각 회원국의 유상 경매 판매로 비율이 고정되어 있으나, 필요 시 경매 물량의 최대 3%p까지 무상 할당 가능(ETS 규정 10a조 5a항), '26~'30년 기준 관련 배출권 규모 8천만 톤으로 산출
 - 이번 추가 무상 할당의 적용 대상은 철강, 시멘트 등 제품 벤치마크에 해당되지 않는 대체 벤치마크 중 제품 생산 공정에 열이나 직접 연료를 사용하는 정밀 화학, 식·음료 가공, 철·금속의 2차 가공 공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
 - * 1차 제철 및 조강·1차 압연은 철강 제품 벤치마크 적용, 이 외 석유·천연가스 관련 채굴·정제·수송 등 관련 시설도 제외
 - ETS 무상 할당량 조정은 역외 수입품의 CBAM 인증서 감면 산정 기준(역내 동일 제품의 무상 할당)에 직접 연동되므로, 입법 완료 시 열·연료 대체 벤치마크를 사용하는 수출기업의 CBAM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보고·검증(MRV) 규정으로 해상운송 보고 체계 단일화 제안

<해상운송의 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보고·검증(MRV, Monitoring·Reporting·Verification) 규정>

- (개요) EU MRV 규정은 역내 항만에 입·출항하는 5,000 GT 상선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과 보고·검증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적용 대상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항 정보, 운항거리·시간, 운송 실적 등을 모니터링하여 연례 일정에 따라 보고해야 함

- 현재 5,000GT 이상의 대형 상선에는 MRV 규정의 모니터링·보고 의무와 함께 ETS가 전면 시행 중임, 한편 5,000GT 이상 대형 해양(offshore) 작업선 및 400~5,000GT 중소형 일반 화물선·해양 작업선은 아직 모니터링·보고 의무만 적용되며 향후 ETS 도입 전망
- 이에 집행위원회는 향후 해운 분야의 ETS 적용 대상 확대와 해운연료규정(FuelEU Maritime)* 시행에 따른 보고 요건 추가로 인한 해운 선사의 다중 보고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해운 MRV 규정을 중심으로 보고 체계를 단일화하는 규정 제안
- * 해운연료규정(FuelEU Maritime)은 EU 항만을 기항·운항하는 선박에 선박 연료의 온실가스 단계적 배출 감축을 요구
- 개정안 통과 시 해운연료규정이 요구하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GJ), 육상전력 공급량 등이 기존 MRV 보고 체계로 통합되어 선사는 선박별로 연간 단일 MRV 보고서만 제출하면 됨
- 보고 체계 단일화에 따라 이행 주기도 통합하여, 선사는 매년 2.28일까지 공인 검증인에게 단일 MRV 보고서 초안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검증을 거쳐 3.31일까지 관할 당국 및 집행위원회에 공식 제출해야 함

• 자료 : EU 집행위원회([의견 수렴 포털](#))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윤윙희(unoin@kotra.or.kr)

□ [자동차] 고유가 지속과 저가 전기차 모델 출시 확대로 유럽 전기차 판매 증가

- 로이터 통신은 높은 유가와 저렴한 전기차 모델 출시 확대가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함
- EU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주요 16개 시장*에서 '26.7월 전기차 등록 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했으며, 같은 달 등록된 신차 중 전기차의 차지하는 비중은 25.7%였음
- *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이며, EU와 EFTA 전체 자동차 시장의 약 90%를 차지함
- 올해 EU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 증가해 120만 대를 돌파함
- 유가 상승으로 내연기관차의 연료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유럽 및 중국 자동차업체의 저가 전기차 모델 출시가 확대되면서 전기차 판매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과 향후 유가 하락 가능성은 유럽 전기차 시장 확대의 변수로 남아 있음
- 공공 충전시설 부족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유럽 소비자의 전기차 보유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유럽의 일부 아파트 거주자는 전용 주차 공간이 없거나 공동 주차장에 개인 충전을 설치하기 어려워 공공 충전시설에 의존함
- 유럽 자동차 업계에서는 향후 유가가 하락할 경우에도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유지될지 주목하고 있음

• 자료 : Reuters([8.24](#))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노효주(hyoju.no@kotra.or.kr)

□ [경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유럽 성장 모델 전환 및 자본시장 통합 강조

- 라가르드 ECB 총재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 높은 에너지 가격 등으로 유럽의 기존 성장 모델이 약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
 - 유럽은 그동안 우수한 제조업 경쟁력,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 공급 등을 기반으로 성장했으나, 최근 중국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기존 경쟁 우위가 약화됨
 - 유로 지역은 현재 비교 우위를 보유한 산업의 약 40%에서 중국과 직접 경쟁하고 있으며, 이는 2000년대 초반 약 25%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준임
 - 또한 공급망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비용 절감을 추구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 안보를 중시하는 성장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ECB 총재는 향후 유럽의 성장 동력 확보 방안으로 AI 등 신기술 투자 확대와 EU 단일시장 개편 및 자본시장 통합을 통한 기업의 규모화를 제시
 - 유로 지역 기업들은 올해 전체 투자액의 평균 약 9%를 AI 분야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나, 회원국별로 분절된 시장과 자본시장이 기업의 성장과 신기술 확산을 제약한다고 분석
 - 총재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 Inc.* 도입 등 단일시장 내 장벽 해소 방안을 강조하였으며, 자본시장 통합을 통해 기업 성장 단계에 필요한 자금 조달 확대를 촉구
- * EU Inc.: EU 기업이 회원국별로 상이한 법·제도에 대응하지 않고 EU 전역에서 통일된 규칙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EU 차원의 공통 기업 제도

• 자료 : ECB EUROPA(8.19)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박미진(mjpark.bru@kotra.or.kr)



무역관 행사안내

□ EU 소비재(식품·화장품)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규정 웨비나

- 목적
 - K-푸드 및 K-뷰티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의 대EU 수출과 현지 유통망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
 - * '26년 상반기 K-소비재 수출액 : ① 유럽(U\$57억+39%) ② 중국(U\$51억+7%) ③ 북미(U\$49억+2%)
 - EU 식품 표시 규정, 화장품 규정,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등 EU 시장 진출에 필요한 주요 규정과 실무 절차 안내 및 국내 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
- 일시 : '26.9.15(화) 한국(KST) 16:00~17:35 / 벨기에(CEST) 9:00~10:35
- 프로그램 (* 한국시간 기준, 참가신청 이메일로 추후 zoom 링크 전달 예정)

시 간	내 용	연 사
16:00~16:05 (5')	개회사	김연재 본부장 KOTRA 유럽지역본부
16:05~16:45 (40')	식품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EU 규정 (영어 발표, AI 동시통역 제공)	Brian Kelly 변호사 Covington
16:45~17:25 (40')	화장품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EU 규정	손성민 대표 원게이트코리아(주)
17:25~17:35 (10')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핵심 내용	강지숙 차장 KOTRA 브뤼셀무역관

- 참가신청 : 하단 링크 또는 QR 코드 스캔 통해 신청서 작성
 - * 참가신청 링크 : <https://forms.gle/hoeQsgoq5zCQYyvC7>
- 신청기한 : '26.9.14(월) 한국시간 18시
- 문의 : KOTRA 브뤼셀무역관 조기철 과장(starofjihak@kotra.or.kr)



EU 무역구제조치 동향

* 발표일 클릭 시 EU 관보로 연결됩니다.

산업	품목	CN 코드	유형	조치	대상국	발표일
화학	벤조산나트륨(Sodium benzoate)	29163100	반덤핑	관세부과	중국	'26.7.28
기타	폴리아미드 원사 (Polyamide yarns)	540245, 540261, 540251, 540231	반덤핑	관세부과	중국	'26.7.28
화학	바이오디젤 (Biodiesel)	2710, 2710 3824, 3826, 1516, 1518	상계관세	재심개시	미국	'26.7.31
화학	테레프탈산 (Terephthalic acid)	29173600	반덤핑	관세부과	한국, 멕시코	'26.8.10
철강	규소망간강 와이어 (Wires of silico-manganese steel)	72292000	반덤핑	잠정관세	중국	'26.8.10



EU 분야별 의견수렴

분야	내용	수렴 기간	링크
디지털	디지털 네트워크법(DNA) 초안 의견 수렴	7.2~9.7	링크
디지털	반도체법 2.0(Chips Act 2) 초안 의견 수렴	7.2~9.10	링크
디지털	신규 클라우드·AI 개발법 초안 의견 수렴	7.2~9.29	링크
R&I	Horizon Europe 유럽 파트너십 공동사업단 이행체계 개편 위한 의견 수렴	7.10~10.16	링크
산업	EU 이중용도 수출입 규정 관련 의견 수렴	7.23~10.15	링크
순환경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생산자 등록부 등록 및 보고 양식 이행 규정 초안 의견 수렴	8.6~9.10	링크
배터리	배터리 재활용 함량 산정·검증 위임법 초안 의견 수렴	8.12~9.9	링크
순환경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플라스틱 재활용 및 재생원료 관련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증거 수집 ① 재활용 기술 지속가능성 기준 ② EU 역외 수집·재활용 플라스틱 역내 인정 여부 평가·검증·인증 방법 및 규칙 ③ 플라스틱 포장재에 사용된 재생원료 함량 계산·검증 방법	8.14~9.16	링크① , 링크② , 링크③
에너지	에너지·타이어 라벨링 규정 간소화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	8.20~10.15	링크
환경	탄소배출권거래제(EU-ETS) 연계 제조업·해운 분야 개정 관련 의견 수렴	8.20~10.20	링크



브뤼셀무역관 발간자료

(과거 보고서: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경통리포트26-18	EU 소액 소포 과세 시행 및 관세법 개혁 정치적 합의 내용	2026. 8월
GMR26-045	EU 강제노동 결부 제품 금지 규정 이행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2026. 7월
경통리포트26-17	EU 철강 관세율할당(TRQ) 국가별 배분 이행규정 주요 내용	2026. 7월
경통리포트26-16	CBAM 제3국 기지불 탄소가격 공제 이행법 초안 주요 내용	2026. 7월
경통리포트26-15	EU의 식품 접촉 제품에 대한 규제 추진 동향	2026. 7월
경통리포트26-14	EU K-뷰티 시장 동향 및 규제 대응 가이드	2026. 7월



브뤼셀무역관 영상자료

썸네일(※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주요 내용
	◦ EU 순환경제 규제(PPWR·ESPR) 대응 웨비나 – PPWR 파트 - '26년 하반기 적용되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의 의무 사항과 구체적인 적용 일정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
	◦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대응 웨비나 - '26.12월 EUDR 본격 적용에 앞서 제도 주요 내용 및 최신 정보를 공유하여 우리 기업의 이해도 제고
	◦ [2026 글로벌 신통상 포럼] EU 통상규제의 본격 시행과 기업 유의사항 - EU의 역내 경쟁력 강화 기조 및 핵심 통상규제의 주요 동향,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소개